

이재명 다음 주 대선 출마 선언… 화두는 ‘민생’

오늘 민주당 대표직 사퇴…당내 경선 캠프 인선·호남 총괄 내정
경제성장·친기업 행보 ‘정책 우클릭’ …공약 발굴도 마무리 단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9일 당직을 사퇴하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이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는 출마 선언과 함께 진보와 보수 갈등에 지친 ‘중도층’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이 대표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이르면 다음주께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대표 측은 광주와 전남 등 호남지역 총괄을 내정했고, 이 대표 외곽 조직도 본격 가동되고 있으며 대선 공약 발굴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표의 경선 화두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출마선언문에도 민생에 대한 이 대표의 다양한 생각과 비전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경제 성장과 감세 정책, 친기업 행보 등 ‘정책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당의 정체성이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고 주장하는 등 외연 확장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 보여줄 비 이재명계 인사들과의 ‘관계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통

합과 포용’을 내세워 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연이은 회동을 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출마 선언 장소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를 포함해 복수의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도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영상 메시지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의 싱크탱크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그의 경제 싱크탱크인 ‘성장파통합’은 오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한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도 경제 분과에 참여한다.
민주연구원은 현재 온라인 소문 플랫폼 ‘모두의 질문Q’에서 수집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녹색(Green Paper)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이르면 이달 말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녹서를 후보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의 정책 공약이 짜여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문수·한동훈·오세훈 출마 선언 ‘초읽기’

국힘 잠룡들 대선 도전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8일 각각 광화문광장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장관직에서 사퇴해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의도에 선거 사무실을 계약하면서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대선 도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유승민 전 의원 외에도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현역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룰 논의에 착수한다.
선관위 및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선 흥행을 위해 후보들을 2~3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2명까지 주려 본경선을 치

르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예비경선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되는 안 중의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대선의 경우 11명의 후보를 1:2차 예비경선을 통해 8명, 4명으로 압축했다. 이를 통해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등 4명의 후보가 본경선을 치렀다.
당시 1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 2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70%와 당원투표 30%’ 방식으로 치러졌다. 본경선 룰은 ‘당원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였다.
이번 대선에서 본경선 룰은 당헌·당규로 정해져 있는 데다 대선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경선을 논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찬성파’와 ‘반대파’의 유별리가 엇갈리며 신경전이 격화할 수 있다.
‘탄핵 찬성파’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정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며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 대선 불출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란 종식·정권교체 동행”

대권 도전을 저율질 했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를 위해 동행하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우리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다. 정권이 교체돼야 내란 종식도 가능하고 국민 통합의 길도 열린다. 이러한 시대정신의 최종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의 혼란 속에서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낸 이재명 대표가 시대정신을 대표한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주범 윤석열을 옹호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며 폭력을 부추겼다”며 “그들은 대통령선거에 나설 명분조차 없었다. 국력·국위·국격을 추락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밝힌 김 지사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힌 이후 광복 행보를 보였다.
김 지사는 ‘호남 주자론’을 내세우며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혀왔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정치 상황 변화를 고려해 불출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두관 전 의원 대선출마 선언

광주 찾아 기자회견 “개헌 통해 7공화국 열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이 8일 첫 행보로 광주를 찾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대명’ (아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압도적 승리가 어렵다”면서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 정치와 개헌을 실천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승자독식·제왕적 대통령제는 1987년 민주주의의 어두운 그늘로 윤석열의 계엄선포에서 보듯이 과도한 권력 집중이 민주주의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이번 대선은 호헌 대 개헌의 대결이 될 것이다.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파면으로 흑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났다”면서 “6공화국 대통령 8명 중 구속되거나 파면된 대통령 4명이 모두 보수 정당 소속이었다”며 진보진영 정권 교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보진영 완전개방형(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국민연합 후보 선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총 본산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5·18영령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번 계엄도 막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에 참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